미국 H마트와 전북 농수산식품 글로벌 시장 도전

바이오진흥원, 미국 H마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바이오진흥원은, 미국 H마트의 바이어들을 초청하여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 이하 바이오진흥원)과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미국 최대 아시안 식품 유통 체인 H마트의 바이어들을 초청하여 수출상담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북 지역 농수산식품 기업들에게 미국 시장 진출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자리로 도내 18개 식품 기업이 참여하여 1:1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다.

H마트는 미국 16개 주와 캐나다, 런던 등을 포함해 전 세계 총 90여개 매장을 운영하며, 연간 매출액이 약 26억 달러(약 4조 5000억 원)에 이르는 북미 최대의 아시아 식품 전문 유통체인이다.

바이오진흥원, 미국 H마트의 바이어들을 초청하여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

특히 H마트는 전통적인 한식뿐 아니라 다양한 아시아 식품을 북미 시장에 소개하며 폭넓은 소비자층을 확보하고 있다.

이번 상담회에서는 도내 식품기업 30개사의 신제품이 전시되었으며, 바이어들로부터 품질과 패키징 디자인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를 통해 제품 개선 및 현지 시장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귀중한 피드백이 제공됐다.

H마트 바이어들은 "전북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이 품질은 물론 현지 소비자의 기호에 부합한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내년에는 가능성 있는 신규 품목의 현지 테스트를 통해 전북 생산 식품의 수출 품목을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이은미 원장은 "이번 상담회는 단순한 수출 상담을 넘어 전북 식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인하고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미국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지화 전략과 수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를 통해 전북 지역 농수산식품 기업들은 미국 시장 진출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옥기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 20일 완주군 산속등대 복합문화공간에서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안아드림' 토크콘서트를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희망의 빛, 함께 걸어가는 길'

전기안전공사, 자립준비청년 위한 토크콘서트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는 지난 20일 완주군 산속등대 복합문화공간에서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안아드림' 토크콘서트를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안(안아줄게)아(아프지마)드림(Dream)' 사업은 지난 2021년부터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전북도 △전북도자립지원전담기관 △굿네이버스 전북지역본부 △새만금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가 공동 추진하는 '드림(Dream) On 프로젝트' 중 하나로, 자립준비청년들의 정서적 지원을 위한 사업이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개최 장소인 산속등대의 빨간 등대와 청년들이 빛을 찾는 여정을 연결하여 "희망의 빛, 함께 걸어가는 길"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전북지역 자립준비청년들과 관계기관의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청년들의 자립과 꿈을 응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예능프로그램 '유퀴즈 온 더 블록'에 출연해 자립준비청년들이 겪는 고충을 세상에 알리고, 자립에 성공한 봉앤설이니셔티브의 박강빈 매니저가 멘토로 참여했다.

박강빈 멘토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직면하는 심리적 어려움과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누며,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조언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또한, Q&A 시간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과 관계기관 직원들의 고민과 어려움을 나누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도 가졌다.

한국전기안전공사 남화영 사장은 "등대가 길을 잃은 이들을 안전하게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역할도 청년들이 꿈과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주는 것"이라며 "청년들의 미래를 밝히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은, 고3 수험생을 위한 '넥스트레벨 토크콘서트' 성료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지난 20일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에서 고3 수험생을 위한 2024 넥스트 레벨 토크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해 수능시험을 치른 고3 수험생들이 인생 공감 토크 콘서트를 통해 수험생활의 스트레스를 털어 버리고 미래의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해 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했다.

배우 박재민과 전문MC 임효리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행사에는 전주시 14개 고등학교 고3 수험생과 교사 등 2천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인기 있는 뮤지션인 허각, 한해, 신현희 등이 출연해 공연 뿐만 아니라 인생 선배로서 본인의 경험담과 진로 선택을 위한 진심어린 조언을 담은 토크쇼를 펼쳐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행사장에 이동영업점 '쏙버스', 캐릭터 '제이비'와 '씨드' 대형풍선을 설치해 흥미와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이만호 기자

한전 전북본부, 대용량고객 설비점검 · 기술지원 시행

2024년도 대용량 고객 설비점검의 날 행사… 현장 맞춤형 서비스 제공 · 파트너십 강화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본부장 연원섭)는 2024년도 대용량 고객(Power Partner) 설비점검의 날 행사를 맞아 21일에 한국철도공사 등 전북지역의 주요 고객들을 대상으로 설비점검과 기술지원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고객설비 점검 등 현장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고장 예방으로 안정적 전력공급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대용량고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한전 전북본부는 오는 12월 18일까지 ㈜전주페이퍼 등 24개 社를 방문하여 송전분야(16개 항목), 변전 분야(14개 항목), 계통 분야(3개 항목)으로 나누어 설비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한전에서 대용량 고객의 설비점검 및 기술지원 내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응답자의 90%가 서비스 만족도에 대해 '매우 만족'이라고 답하였다.

또한, 한전에서는 전북도내 계약전력 2만kW 이상의 대용량 고객(36호)을 대상으로 전력소비량에 따른 요금분석 및 전기공급약관 개정사항을 안내하는 등 요금컨설팅도 시행중에 있다.

연원섭 본부장은 "앞으로도 전북지역의 대용량 고객에 대한 설비점검과 기술지원을 통해 고객의 기대를 뛰어넘는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농협자산관리 전북지사, 우리마을 희망동행 프로젝트 실시

농협자산관리 전북지사는 '우리마을 희망동행 프로젝트' 행사의 일환으로 삼기면 관내 마을회관에 필요한 생필품을 지원하였다.

행사에는 박기배 삼기농협 조합장, 농협자산관리전북지사장과 영농회장, 부녀회장 등이 함께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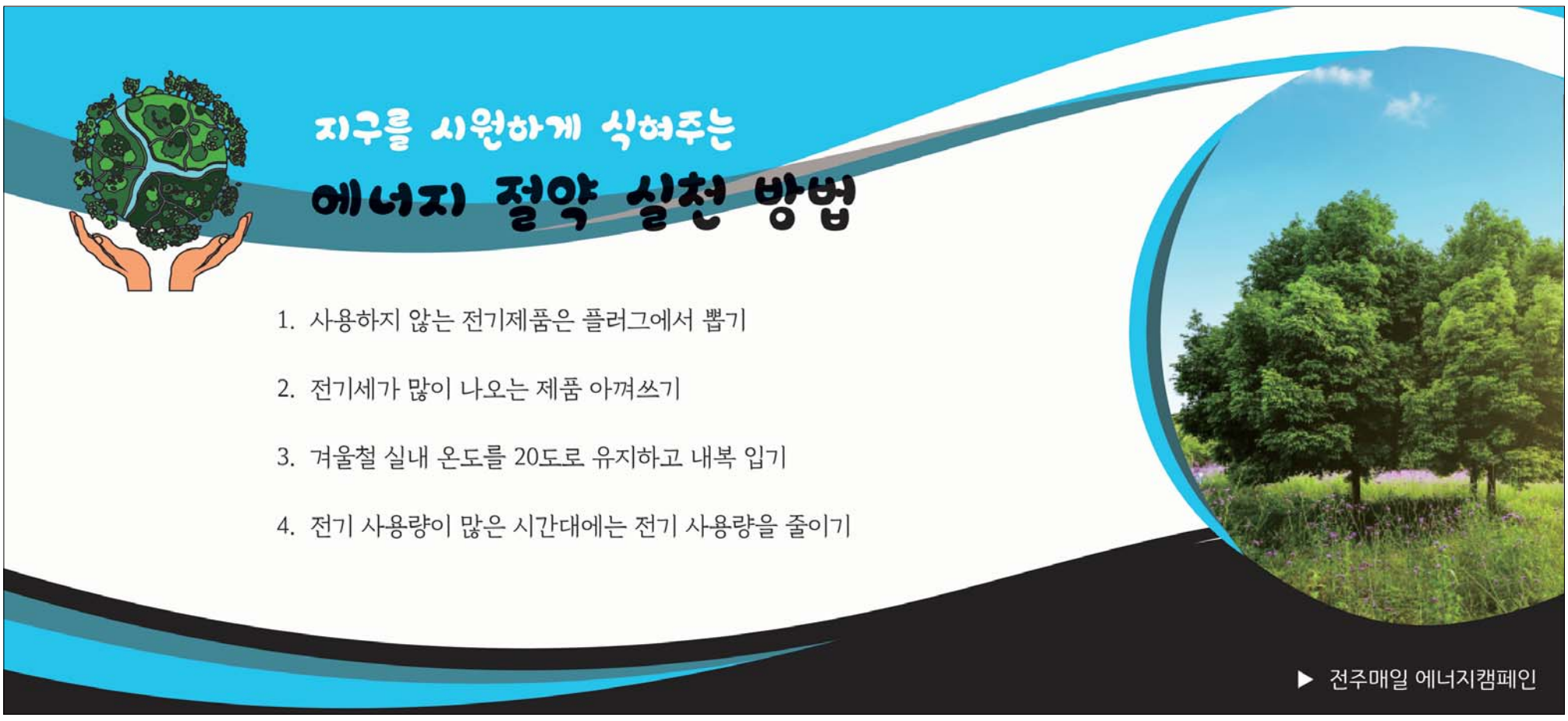
지원을 받은 마을의 주민들은 동절기 생필품이 필요했는데 지원받아 감사하다고 전했다.

김장근 농협자산관리전북지사장은 "추운 날씨 속에 오랜 경기침체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농가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우리마을 희망동행 프로젝트를 통해 농촌에 더욱 공헌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건협 전북, 전자입찰 실무교육 개최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임근홍)는 21일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4층 대강당에서 '회원사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자입찰 실무교육'을 개최했다.

도내 전문건설업 대표 및 임·직원 150여 명이 참석한 이날 교육은 입찰교육 전문업체인 전자입찰교육원의 전문강사진이 조달청 차세대 나라장터의 개정 사항 및 건설업 실무 전자입찰의 개념과 적격심사 이해 등의 내용을 교육했다.

또한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상호시장 진출 공사입찰에 대한 설명과 입찰공고에 대한 분석과 질의응답을 통해 회원사의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임근홍 회장은 "회원사들이 전자입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보다 실무적인 부분에 도움을 주고자 이번 교육을 개최했다"며 "앞으로도 협회는 회원사에게 필요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회원사 경영과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